

바리새인 같은 옛 틀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새 틀로 - 복음으로 여는 마태복음 II - 레위기19:18, 마태복음16:1-20

정윤돈 목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 하시되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놓쳐서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에서 살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평강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승리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메시지,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게 하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만드는 치유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도록 하겠다. 우리의 울무, 틀, 함정을 묵상해왔다. 울무에 꼭 묶여 있으면 내가 풀 수가 없다. 누가 풀이줘야 한다. 그 풀어주는 것이 다락방인 줄 믿기를 바란다. 말씀으로 도와줘야 한다. 틀에 매여있으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 틀을 깨부수는 것이 말씀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에레미야가 함정에 빠졌다. 그런데 어떻게 건져내주는가. 천을 아래로 내려 구해준다. 정말로 깊은 함정에 빠지면 내가 헤어 나올 수 없고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 여러분이 이 사역을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하길 축원한다.

오늘 '각인' 마약치유뮤지컬 팀이 왔다. 저도 과거에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강의도 하고 했다. 현재는 회복자들과 배우들이 같이 하는데 누가 회복자이고, 배우인지 모를 정도로 치유됐다. 알 필요도 없다. '내가 진정 그랬던가.' 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이다. 내 자신을 사실적으로 볼 때, 내가 마약중독자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마약상담을 해보면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살시도 한 적이 있다. 어떤 분은 세 번 자살시도 했는데 죽지 못했다고 한다. 차를 타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마침 누가 지나가면서 바로 신고했다고 한다. 차도 좋은 차라 가라앉는 게 오래 걸렸다고 한다. 또, 한 번은 친구 공장에 가서 술 한 잔 하다가 '죽어야겠다.' 생각해서 친구가 나가고 목을 매었는데, 친구가 두고 온 물건을 가지러 바로 들어와서 살았다고 한다. 나중에 의사가 죽으려면 확실히 죽으라고 한다. 그래서 기분 나쁘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하니, '자살 시도를 해도, 성공확률은 50% 이상이다. 약물로 애매하게 자살시도하다 반신불수로 병원에서 속이 다 버려진 상태로 평생 고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자살시도는 못하겠다고 하더라. 현실은 그렇다. 그러나 진실은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므로써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영적 사실은 마약뮤지컬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고통받는 사람들과 청소년들을 치유하고 예방하라는 것이다. 복음만 치유할 수 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오히려 언약을 붙잡는다. 갱신하고, 치유 받고, 훈련받는다. 그런데 인간들은 조금만 나아지면 다른 것 한다. 포로 되고 노예, 속국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다. 약 150년 동안 바벨론의 속국생활을 했다. 그 때, 이 사람들은 150년 동안 많은 영적인 회복을 했다. 부서졌던 성전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언약도 회복하고 땅, 나라도 회복했다. BC 444년에 마지막으로 3차포로 귀환 후로 페르시아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 알렉산더 왕이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멸망시킨 새로운 강대국, 로마가 일어났다. 유대인들은 수백 년동안 노예근성, 속국 근성, 무능함, 절대 중독, 절대 무능, 절대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내가 벗어날 수 없다. 라는 상태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있었다. 그 속에 묶여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30세가 되어서 활동하지 않으신가. 그 동안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너무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묶여있는 울무, 벗어나지 못하는 전통, 관습, 습관에 매여 있었다.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할 함정에 빠져있었다. 잘못된 각인과 뿌리가 완전히 체질이 되어있었다.

1. 유대인들이 가진 잘못된 것.

(1)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있었다.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신 이유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다.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의 나라로 부르신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고, 다른 민족과 함께 식사하면 죄라고 여길 정도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고 본인이 후배임에도 꾸지람을 했었다. 복음 전하고,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

까 베드로가 도망갔다. 그 정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았다.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기록한 것이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며느리이다. 윤리, 도덕적으로 자랑할 족보가 아니다. '뱀아. 윤리 도덕적으로 너희도 자랑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기생 라합, 이방여자 킷도 나온다. '뱀아. 너희 조상이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멸시해?' 라고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다. 또 대단한 인물도 나온다. 어떤 분이 군대에 가서 군대 동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하면서 기드온에서 나온 신약성경을 줬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막 뛰어왔다고 한다. 마태복음 1장을 읽으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는 것이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부분이였다. 다윗과 솔로몬을 아는 데, 남의 부인을 통해서 나온 것 인줄을 몰랐던 것이다. '뱀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자랑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동지가 끝까지 성경을 읽고 질문한 마디도 없이 좋은 신자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결코 교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죄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온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중요한 인물이 조상으로 나온다.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조상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을지문덕 장군처럼 훌륭한 인물들이 있다고 보자.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예수님처럼 중요한 구약시대의 인물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 족보를 봤을 때 너무 잘 아는 인물들이었다. 그 족보를 읽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이다. 유대인들 중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이 이야기를 읽고 진실하게 수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핍박한 사람도 있었다.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도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으시라. 그래서 전도도 쉬운 것이다. 예비 된 사람만 찾으면 된다. 류 목사님이 간증하셨다. 주유소에 갔는데 옆에 있는 평신도가 나가더니 주유하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전도자가 된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말해서 영접시킬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 평신도가 말했다. '예비 된 사람은 건들기만 해도 영접한다.' 그럼 예비 된 자는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니, 모르니까 자꾸 쫓아온다고 한다. 1분 이상 만나면 복음 전한다고 한다. 제주도 캠프를 갔는데 비가 쏟아졌다. '하나님이 오늘 쉬라고 하신가보다.' 그런데 저만 불신양했지, 다른 분들은 다 전도하러 나갔다. 저는 목사여서 다른 쓸데없는 질문이 많은데, 그 분들은 쓸데없는 말 안하십니다. "예수님 아세요? 복음 들어보셨어요. 복음 들어보실래요?" 한다. 현장에 나가면 자살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복음 전해라.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겨서 부산역 앞에 어떤 청년이 오는 것이다. '교회에서 왔는데 복음 들어봤나요?' 물어봐야 하는데 너무 열이 받아서 '어디 갔다 왔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 이 청년도 대학청년회 회장인데 너무 화가 나서 열차 타고 어디 놀러갔다가 왔다는 것이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 준비된 제자, 예비 된 절대 제자를 찾아내고 치유하는 분이 되길 축원한다. 서기관, 바리새인, 중독자 관계였다. 내가 준비했을 때, 내가 결론 냈을 때 주님께서 그런 제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복음이 필요한 현상이 너무 많다.

(2) 유대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야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가 나온다. 미가서를 찾아보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는가? 다 알았지만 영접하지 못했다. 이번에 가나안 성도들 많다. 그런데 교회에 안 간다. 자신의 오래된 각인, 뿌리, 불신앙 때문에 교회에 올 만한 영적 힘과 믿음도 없는 것이다. 그분들을 치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모습이 이렇다. 성경을 다 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아는 것이다. 머리로 아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성경을 읽는다고 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체를 암송했었다. 높고 대단한 하나님을 다 알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못한다. 제자를 만든 적도 없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내 안에 증거, 확신이 없는데 정말 믿는 것인가. 유대인의 모습이 이렇했다.

(3) 그들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즐겼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말씀을 지킬만한 체질이 못되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율법이 구약에 있었다. 그런데 복음은 다 빼놓고 율법만 지켰다.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이성적이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모두 사두개인들이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이 있었다. 사두개인은 영, 천사, 지옥, 부활을 믿지 않았다. 진짜 최고 지도자들인데 이성, 합리주의였는데 영적인 것을 전

혀 믿지 않는다. 교수인데 안 믿는 것이다. 그런데 제사장, 지도자 하고 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모두 사두개인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두 사람을 싸움을 붙여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가. 이러한 오래된 뿌리가 있었다. 그래서 마태는 세리 야나가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였다. 그런데 마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 아닌데'하는 양심이 있었다. 고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저 분을 따라가면 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일하고 있던 마태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다. 현장에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길 축원한다. 고민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인생이 맞는가. 이것이 가정이 맞는가. 나는 왜 이리지. 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에게 답을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조금만 말해도 마태처럼 따라붙는다.

(4) 유대인들은 잘못된 윤리, 도덕주의에 빠져있었다. 간음한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했다.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로마 법에 위반되지 않아요.' 그런데 치지 말라면 유대인 법에 어긋나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씀하셨다. 간음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잡아왔는가? 아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의 윤리, 도덕적인 약점을 붙잡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사람 많다. 바르게 해야 하고 옳게 해야 한다는 사람이 많다. 이것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다. 솔로몬의 재판의 두 여인의 예화가 있지 않는가. 솔로몬이 공평하게 아이를 갈라서 서로 가지라고 했다. 교회에서 공평하게 나누라는 말은 교회 깨자는 말이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그렇게 공평하게 하시는가? 살리는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밋이 되는 것이다. 나에게 철저히 해야겠지만 복음은 다른 사람의 어떤 부족과 허물까지도 끝까지 기도해 주며, 사실은 이러이러해, 그러나 영적 사실은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복음 전해줘야 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복음을 깨닫는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5) 이상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적과 기적에 관심이 많았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진실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는 것이다. 그 때, 예수님께서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변증을 보면 말싸움에서 절대로 진 적이 없으시다. 단지 말 못하게 만드신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말싸움에서 이기면 그 사람이 지고 예수님을 믿는가. 그런 영적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잘못 댔으면 '맞습시다.' 인정해야지, 틀렸는데 인정하지 않고 도망간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한다.(웃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많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개혁되고 갱신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한다. 이상하게 3단체와 명상을 강조하는 단체가 이성과 합리주의, 지식을 강조하면서도 기적과 이적에 관심이 많다. 그와 같은 단체가 초대교회 시대에 활동했던 이단 영지주의였다. 사두개인들이 이러했다.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면서 신비를 굉장히 강조했다. 귀신이 알려준 것들이다.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따라간다. 이것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처음부터 이용했던 방법이다. 병을 고쳐주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다.

2.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한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1)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사람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수 없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외에 주리고 목이 마르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은 이 상태가 절대로 안 된다. 비판하지 말라. 절대로 이렇게 안 된다. 열 번, 백 번 비판을 해야지 혈액순환이 된다.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가능한 방법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임을 믿기를 바란다. 마약치유도 절대 불가능하다. 마약중독은 죽을 때까지 치유가 안 된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24시 복음이라고 한다. 아무 생각이 안 나도록 계속 뮤지컬을 하는 것이다. 25, 영원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의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완전 믿음의 체질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 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마약 뮤지컬 팀이 와서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산을 넘기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3)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진정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늦게 시작해도 결국에는 먼저 된 자의 응답을 받게 될 줄을 믿는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하셨다. 공부 못하는 램프들도 결국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사람이 되면 서밋의 탑에 이르게 될 줄을 믿는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오셨다. 고등학생 때까지 실컷 타락하고 놀다가 20살 때, 다락방을 접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유학 갔다가 와서 지금 엘리트 사역한다고 한다. 복음 안에서는 가능한 줄을 믿기를 바란다. 아르바이트는 하루에 8시간을 하면서 대학에서 F학점 하나 받았다고 한다. 레포트를 썼는데 각주를 안 써서 도용의심을 받아서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F학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성적표에 적는다고 하더라. 꼬리표처럼 '표절'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는다고 했다. 그래서 대충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것이 율법인가? 남들에게는 관대하고, 본인에게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보다 나아야 한다고 했다. 모든 삶이 더 나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를 향해 도전하기를 바란다. 늦었더라도 복음 안에 있으면 가능해진다.

(4)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참 복음의 사람은 종같이 섬겼는데 결국에는 서밋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다. 램프 7명이 모두 이러한 응답을 받았다. 마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을 주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항상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교만하지 말아라. 요셉,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는가. 형들이 양치지 않아도 밤새도록 돌 던지는 연습을 하지 않았는가.

(5)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사람은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지만, 영원토록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구원 받고,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한다. 오늘도 새가족에게 말씀드렸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루에 다섯 번 이상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응답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셨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이다. 항상 그러한 사람이 되기 축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내기 싫어도 그렇게 된다. 그런 응답이 계속 될 줄을 믿는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합숙하고 훈련 받아야한다. 다락방은 작은 울무를 끊어질 수 있지만 쇠로 묶여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WRC 가야 한다. 중장비를 사용해야 한다.(웃음) 사도 바울이 말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분이 그렇게 될 줄을 믿는다. 사도 바울의 비밀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이다. 목숨 걸고 3오늘, 예배, 훈련 받으라. 그렇게 되면 누리게 된다. 사도 바울은 갈2:20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도전했던 것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잘못 각인된 율법, 뿌리, 체질을 바꾸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집중과 합숙이다.

결론을 우리의 CVDIP과 다섯 가지 합숙으로 적용해보고 자 한다.

1. 언약과 1차 합숙이다. 1차 합숙을 통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접할 수 있다. 1차 합숙을 통해서 참 복음과 그리스도를 깨닫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사람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다.
2. 비전과 팀합숙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모두 팀합숙을 통해서 팀을 형성하고 팀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큰 응답을 받는다. 절대 불가능은 없다. 나 혼자 안 된다.
3. 꿈과 70인 합숙이다. 70인 합숙은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방법을 알려주는 훈련이다.
4. 이미지와 전문합숙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업과 전문성을 통해서 미래에 주실 그림을 확실하게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5. 실천과 전도합숙이다. 전도합숙은 전도자가 실현해야 할 절대 목표의 방향을 확인하는 합숙이다.

이 다섯 가지 언약과 합숙을 통해서 절대로 변화가 불가능한 바리새인과 같은 각인, 뿌리, 체질, 그 틀, 울무, 함정을 완전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복음의 체질로 변화시키는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팀과의 만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축복된 언약의 여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이오니 이를 통해서 전 세계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새로운 도전과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직 바뀌지 못하는 울무, 틀, 함정, 변화 받지 못하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집중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합숙의 응답을 받아서, 팀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든 부분이 변화되어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쓰임 받을 만한 복음의 각인으로, 체질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